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5월 23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5월 25일(목) 15시: 기자촌 자료집 수정회의

■ 연구원 소식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오셨습니다

봄의 심장을 관통하는 오월, 우리 연구원에 네 분의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김태영, 정혜인, 진서금, 박준하 님이 주인공입니다.

김태영 님은 한국청렴전문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시며 광주전남지부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정혜인 님은 우리말 지킴이 “숨” 대표로 지난 54차 문화강좌에는 강사로 55차 문화강좌에는 청중으로 참석하신 후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진서금 님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 재직 중이십니다. 변주승 이사의 추천으로 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박준하 님은 오해 열아홉 인 대학 새내기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전주까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청춘입니다. 현재 연구원 최연소 회원입니다.

우리 것을 알고 나누기 위해 새로운 식구가 되신 네 분에게 다시 한번 큰 환영 인사 드립니다.

전주시 인문 주간 기념 문학 더하기 인문 강좌

5월 1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연구원 유영봉 회원님이 진행하신 인문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영봉 선생님께서 직접 걸으신 DMZ(평화누리길)을 눈과 귀로 따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DMZ 기행문을 함께 읽고 나누며 대립의 시대에 평화의 바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역사속의 오늘

암흑의 시대를 밝힌 조용한 햇불 (1981. 5. 27)

그는 1959년 전라도 광주에서 구 남매 가운데 여덟째로 태어났다. 학창 시절 내내 성당 학생회에 참여해 가톨릭 교리에 대해 공부했고 교리 교육 때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신학대를 가고자 했으나 어머니의 만류로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에 입학한 1978년은 유신독재의 압제가 절정에 달했던 해였다. 대학에는 수많은 사복경찰이 상주했다. 긴급조치 9호로 인해 유신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로도 체포될 수 있던 시기였다. 그 역시 유신체제에 강한 염증을 느꼈지만 학생운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수많은 학우들이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고통을 겪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군부독재 아래에서 신음했고 그는 홀로 괴로워했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고민했다. 그의 고교, 대학 친구였던 이흥철 변호사는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그의 책상 앞에 **‘사랑의 사회실현과 진리탐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이기’**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10.26으로 막을 내린 유신독재는 민주화의 봄 앞에 그 잔상마저 녹아버리는가 싶었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민주인사 수백 명과 학생대표 백여 명을 연행한 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공수부대가 도륙한 5월 광주는 그의 고향이었고 그날 소리 없이 쓰러져간 이들은 그의 이웃이었다. 그가 살았던 광주 집은 금남로 곁이었다.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은 그의 마음에 큰 응어리로 남았다고 비극의 한가운데 선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시민을 폭도로 몰았고 어느 누구도 계엄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거대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자신도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이 한없이 고통스러웠다.

1981년, 5월 2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는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학생들은 광주항쟁에서 숨진 이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곧 학생 수보다 더 많은 전경이 달려와 시위를 저지했다. 도서관 6층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그가 “전두환 물러가라!”를 세 번 외치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경찰은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주변에 최루탄을 난사해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을 놓았다. 그가 투신한 다음날 신문에는 "서울대생 도서관에서 투신 사망"이라는 단신 기사가 실렸을 뿐이었다. 어느 언론도 그의 죽음을 광주와 연결 짓지 못했다. 그가 숨을 놓은 다음날 신문과 방송을 도배한 것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 기획한 관제행사인 "국풍 81"이었다.

그러나 그가 투신한 다음날인 5월 28일 도서관 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파쇼 타도" "전두환 타도"라는 글이 쓰이고, 2천여 명의 학생이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추가 시위를 우려한 학교 측은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앙도서관을 17일 동안 폐쇄하기도 했다.

1981년 10월 23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3층 난간에서 '반파쇼 민주투쟁 만세'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돌며 시위한 혐의로 학생 5명이 구속되었다. 1981년 11월 25일에는 중앙도서관 5층 난간과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횃불과 메가폰을 활용한 시위가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되었다.

불의한 권력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음에도 누구도 선뜻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는 시대였다. 결국 누군가는 모든 것을 바쳐 이 침묵의 부조리함에 경종을 울려야 했고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에겐 돌멩이도 유인물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그의 피로 적셔졌던 대지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던 이들에게 용기라는 양분을 나눠주었고 오늘 우리 역사를 이만큼 밀어오게 만들었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던 그의 마음, 정의를 온 몸을 다해 쫓았던 용기, 비할 수 없는 자기희생... 한 시대가 지워지지 않게 만드는 것에 참으로 많은 목숨들이 필요하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가 받은 세례명은 다두(타대오)였다. 절망과 신념을 잃은 사람들의 수호 성인인 다두가 세례명으로 정해질 때 그가 짊어져야 할 역사의 무게가 정해졌던 것은 아닐까?

41년 전 오늘, 목숨을 던져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을 외쳤던 '다두(타대오)' 김태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했던 것이 온전히 이뤄졌을까?